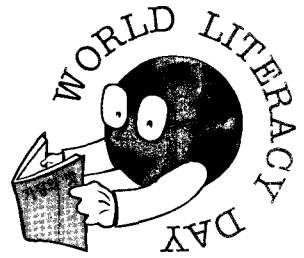


# 지역 안배 만사?

김강석 / SBS 보도국 사회1부 차장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안배가 만사가 되고 있다. 지역감정에 관한 한 이 문제를 끄집어 내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이고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난 1월 17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언론들은 대통령의 동향도 아닌 이른바 TK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영남권도 끌어 안았다고 논평했다. 또 그 이전 호남 출신 법무부 차관은 일찌감치 총장후보에서 제외돼 역차별 당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갈수록 지역 차별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정부 인사 등을 할 때 출신 지역별로 숫자를 안배하지 않고는 버텨내기 힘든 정도가 된 것이다.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할 인사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영원한 코미디다. 물론 이런 지역감정이나 지역 안배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 지역감정은 남아 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인 뉴욕주의 어느 가정에서 과거 남북전쟁때 내걸렸던 남부군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미국에서도 남북간 동서간 지역감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단일민족에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남득하기 힘든 비극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겨난 것은 불과 30년 전부터라는 사실이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겨뤘던 지난 71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역 갈등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악화돼 온 것이다. 지역감정이 해소될 정치적 기회는 몇 번 찾아왔지만 양 김씨의 분열로 번번히 실패했다.

파슨즈(T. Parsons)라는 사회학자는 지역연고, 학맥, 인맥 등 특수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회를 분화가 덜 된 원시사회로 분류했다. 경제규모는 선진자본주의 수준이지만 그 사회를 끌어가는 원칙이나 원리는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의 이른바 대권주자들은 자신만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해 권력을 손에 쥐었으며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지역감정을 건드려 이를 넘겨왔다. 이런 전례를 생각한다면 대선주자들이 주장이 어떤 설득력과 현실성을 가질지는 대선과정의 행보를 통해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만큼은 일선직장에서까지 영남정권이 들어서면 영남 출신인물을 그리고 호남정권이 들어서면 호남출신 인맥을 등용하고 인사를 지역출신에 따라 기계적으로 안배하는 덜 떨어진 사회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PPKK